

억양과 초점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이 영 길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A Pragmatically-oriented Study of Focus and Intonation

Yeong-kil Lee

Dept. of English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yklee@chonnam.chonnam.ac.kr

요약

모든 문장에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초점이 있고 높낮이돌림을 포함하는 초점범위는 다시 정보 초점을 필수 요소로 갖는 정보 구조 경계를 갖는다. 모호성이 없는 적절한 초점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국어 초점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초점 성분의 영역이 확인되고 화맥에 의한 초점 해석이 가능해진다. 초점 성분을 설명하고 높낮이돌림과 초점 돌림의 관계를 기술하는 '기본초점규칙'이 필요하며 '정보 구조 원리'에 의해 '새로운' 정보가 선택되어 초점 범위는 화맥에 의해 구체화된다. 정보 구조가 문법 체계의 모든 의미 계층과 관계를 가지며 정보 구조의 경계 안에 정보 초점으로 실현되는 초점 돌림이 있게 되므로 기본 초점 규칙은 '초점 돌림 원리'로 수정되어 초점 범위 내의 음절에 초점 돌림이 할당된다.

1. 억양의 기본 단위는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전체이며 하나의 억양구 안에는 다른 음절에 비해 더 높게 혹은 낮게 발음되는 악센트 음절이 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높낮이(pitch)에 의해 주위의 다른 음절에 비해 돌돌리는 현상을 높낮이돌림(pitch prominence, PP)이라 부른다. 이러한 돌돌림을 갖는 악센트 음절을 (높낮이) 돌돌림 음절이라 하고 음절 위에 *를 표시한다.

다음 예를 보자.

(1) 가. 그러면 /오\ 죽이나 좋겠니↓

나. 그러면 \오/ 죽이나 좋겠니↓

위의 예들에서 /\은 오르내림을 나타내고, \ /은 내리오름을 나타내며 문장 말미의 ↑ 또는 ↓은 각각 오름/내림을 나타낸다. 이러한 어조 영역이 때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음절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음절 하나에 돌돌림이 실현된다. (1)의 예들에서는 악센트음절 '오'를 중심으로 그 뒤에 오름조와 내림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것은 돌돌림 음절이 억양구의 억양 형태의 조절 능력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국어에서 악센트 음절의 높낮이에 의한 돌돌림을 '높낮이 돌돌림'(pitch prominence, PP)이라 부르고 '높돌돌림'은 PP[+high], '낮돌돌림'은 PP[+low]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2) PP → { +high } / ... — ...]_{IP}
 +low

(하나의 억양구 안에 나타나는 돌돌림음절은 [+high] 또는 [+low]이다.)

이와 같은 돌돌림 음절은 문장 내에서 초점 성분 할당에 필연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억양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2. 화맥 의존성과 조절 가능성(adaptability)이라는 관점에서 발화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의사전달 행위에 있어서 모든 발화는 주로 어떤 것에 관한 '언명'(statement)으로서 '화제'(topic 또는 theme)와 '평언'(comment 또는 rheme)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발화를 화맥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화제는 '알려진'(given) 요소를 포함하고 평언은 '새로운'(new) 정보를 말한다.

(3) X: 미연엄마한테는 왜 갔어?

Y: 전 미연엄마한테 빌딩 / 사라고 했어요↓

위의 대화 (3)에서 의문사 '왜'는 전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빌딩에 관한 문제는 이미 공유된 사실로 '미연엄마한테 갔음'을 전제로 하고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나 화맥에 따라 Y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초점 범위가 확대될 수가 있다.

(4)

전제 = <주어집>	초점 = <새로운>
가.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고	했어요
나.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고 했어요
다.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고 했어요
라.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고 했어요

초점의 개념은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초점을 형식적 범주가 아닌 의미-화용론적 범주로 정의한 Lambrecht는 '알려짐/새로운' 대신에 '전제/단언'으로 구분하고 초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OCUS : The semantic component of a pragmatically structured proposition whereby the assertion differs from the presupposition. (Lambrecht 1994:213)

위의 정의에 따라 다음 국어의 예를 보자.

(5) X: (대학에서 무얼 합니까?)

Y: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합니다.

위의 예 (5)에서 정보의 집중 요소는 '언어학'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말하는 이가 정보 요소로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메시지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만일 초점이 새로운 정보와 동일시된다면 '언어학(을 전공합니다)'은 전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요소로서만 정보 가치가 있을 뿐이다. '새로운' 것은 성분이나 지시대상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말하는 이가 대학에서 x를 전공한다'라는 화용론적으로 전제된 명제 속에서의 역할이다. 초점을 관계 속의 화용론적 범주로 볼 때 위의 예에서 '언어학'이라는 초점은 문장의 발화를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 주는 화용론적 해석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초점 표시의 기능은 명제의 요소와 전체 명제 사이의 초점 관계를 알리는 것이다. 초점 성분의 한계 외에도 초점의 적절성 문제는 억양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점과 억양 사이의 어떤 규칙성을 생각한다면 우선 국어의 경우 발화 해석을 위해 다음 (11)과 같은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6) 국어 초점 원리

[... C ...]ux → F /]

PP

(높낮음돌림을 갖는 발화x의 성분 C는 초점이다.)

원리 (6)에 의해 발화 내의 초점 성분의 영역이 확인되면 초점 해석에 화맥이 유용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전체 억양 곡선을 고려함으로써 억양이 초점 성분의 모호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발화에 사상된 억양이 발화를 초점 부분과 무초점 부분으로 구분해준다.

(7)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고\ 했어요↓

(8)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화맥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와 '알려진' 정보에 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바꿔 말하면 특정 발화의 해석과 관계되는 화맥을 근거로 새로운/알려짐을 결정한 후에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할당하고 알려진 정보는 무초점 상태로 돌돌림을 포함하지 않게 한다. 이 경우에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발화 부분이 '초점 범위'(focal domain)가 되고 높낮음돌림은 이러한 초점 범위 내의 적절한 음절에 위치해야 하고, 이 때의 높낮음돌림은 초점돌돌림(focal prominence)이 된다.

이와 같은 초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필요하다.

(9) 초점돌돌림 원리

PP → f / 1/S[... ..]1/S

(초점 범위 내의 한 음절에 할당된 돌돌림은 초점돌돌림으로 하라.)

(10) 초점 해석 원리

초점 ⇒ 새 정보 ⇒ 정보 초점

(9)는 초점이 될 요소를 선택하고 그 영역은 가능한 화맥에 대해 검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정보 구조 경계 안에는 반드시 돌돌림이 있고 그것은 정보 구조 내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11) 정보 구조 원리

초점돌돌림을 포함하는 초점 성분은 하나의 정보 구조이다.

위에서 말한 초점 성분은 어휘뿐만 아니라 그 밖의 통사(-의미적) 범주를 말한다. 초점 범위와 돌돌림의 관계를 이른바 '초점 투영'(focus projection)의 문제로 간주한 Lambrecht(1994)에 의하면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는 오직 주어진 담화 상황에서의 실체(entity)와 정황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용론적 해석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체와 정황은 어휘가 아닌 구 범주에 의해 통사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12) X: 백화점에서 너의 언니 봤어.

Y: 그랬을거야. 우리 언니 예쁜 /구두\ 샀으니까↓

위의 예에서 Y의 대답 중 '새로운' 요소는 '예쁜', '구두', '샀어' 등을 포함하지만 높낮음돌림은 '구두'에 할당된다.

초점 범위가 화맥에 의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돌돌림과 초점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초점 할당을 여과시켜주는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초점 범위를 제한시키는 규칙을 적용한다.

(13) 초점 범위 제한 규칙

$\emptyset \rightarrow I/S / _ xi \dots lx _ (I/S = \text{Information Structure})$
 ('새로운' 정보들 갖는 최대 성분의 앞뒤에 I/S를 삽입하라.)

위와 같은 '초점 범위 제한 규칙'에 의해 생긴 '정보 구조 경계'는 초점 범위를 제한해준다. 따라서 I/S 경계에 의해 '새로움'이 발화 끝 또는 발화 처음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에서 '예쁜'이 초점이 되지 못한 것은 초점 범위가 하나의 어휘항 '구두'에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예 (15)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 (14) 우리 언니 예쁜 I/S[구두 I/S 샀어] I/S.
- (15) 사장님은 주말에 I/S[하와이에 가십니다] I/S.

문장이 처해 있는 언어적 환경이나 언어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문장의 형식적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 정보 구조의 개념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담화는 곧 의사전달 환경에서 문장의 쓰임새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는 일반적인 화용론의 영역과 관련이 된다.

국어에는 통사적, 형태론적, 음운론적 초점 역할을 하는 예들이 있다. 다음 예들을 보자.

- (16) 포도주 / ^{*}는 가끔 합니다 ↓
 I/S[포도주는] I/S
 (* I/S[포도주] I/S는 / * I/S[는] I/S) 가끔 합니다.
- (17) 열심히 공부 / ^{*}만 해라 ↓
 열심히 I/S[공부만] I/S
 (* I/S[공부] I/S만 / * I/S[만] I/S) 해라.

위의 예 (16), (17)에서 음운론적 초점표시 '는', 또는 한정어인 '만',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비과학적' 등의 형태론적 초점표시인 '반', '비' 등이 높낮돌돌림을 받으면서 그것을 포함한 초점 성분이 전체 정보 구조 경계를 이룬다. (16)에서 '는'은 음운론적 초점 표시로 대조적 의미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높돌돌림을 갖는다. (17)의 '공부만'의 '만'은 일종의 한정어로서 역시 높돌돌림을 갖는 형태론적 초점 범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형태론적 초점 범위를 한정하는 예로는 가상어인 '-라도'가 있다. 특히 '만'과 같은 이른바 극성어(polarity words)들은 초점 배분에 참여하지 않고 초점의 역할만 수행하면서 [+f]인 내용의 의미를 첨가해준다는 주장은 우리의 정보구조 원리에 배치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19)의 경우에 돌돌림이 없는 '공부'가 초점 범위가 되어 정보 구조에서 돌돌림음절 '만'은 배제되는 이상한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의사전달적 의도에 의해 돌돌림을 해석한다는 것은 초점돌돌림 요소의 상대적 의사전달 가치와 운율적 돌돌림 사이의 상관성의 개념에 근거한다. 문장의 돌돌림은 하나의 단어 또는 단어 내의 한 음절에 발생하지만 돌돌림으로 표시된 의미 영역은 정보 초점을 위해 일련의 단어들에 확대된다.

3. 각 정보 단위 내에는 말하는 이가 선택하는 정보 초점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한 음절에 할당되는 돌돌림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보 초점이 지배하는 정보 구조는 화맥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할 수 있다.

높낮돌돌림 ---> 초점돌돌림 ---> 정보초점

다음 (18 가-다)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높낮돌돌림에 의해 생긴 억양형이 억양구를 지배하고 전체 높낮이형을 결정하며 기본적 의미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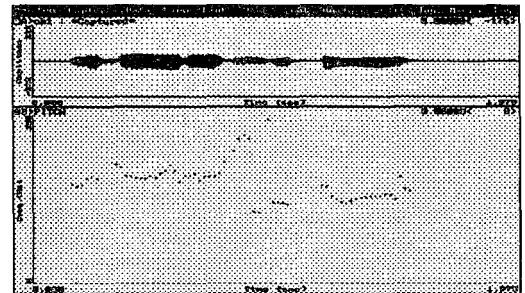


그림 1 '무슨 일이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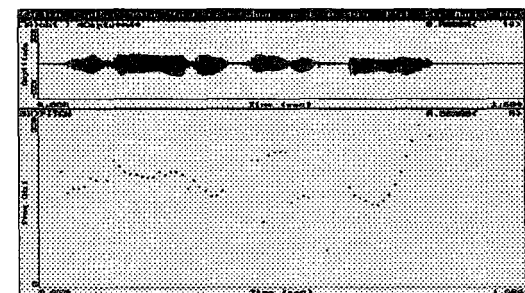


그림 2 '무슨 일이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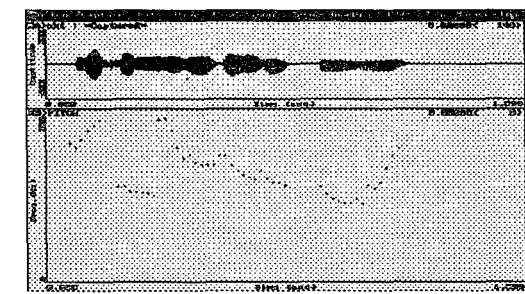


그림 3 '무슨 일이 생겼어요?'

(18) 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나.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국어의 억양과 대조성을 살펴보자. 국어에서는 대조의 효과를 달성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발화의 '알려진' 부분을 낮어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려진' 부분을 높어조로 말하는 경우에는 낮어조의 경우에 비해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나 자신감을 좀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화의 '알려진' 정보는 낮어조가 되지만 다음 예와 같이 낮어조인 돌돌림이 초점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19) 당신은 우리가 살고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low]

위의 예는 각각 돌돌림과 초점 범위의 어조가 다르므로 따라서 표현력(expressive force)도 차이가 있다. (19)는 돌돌림 음절이 낮은 어조에서 출발하면서 일종의 암시적 대조로서 '비정상'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런 태도적 효과의 달성 여부는 말하는 이가 결정할 문제이고 발화의 초점 기능을 갖는 어휘항과 관계있는 초점 돌돌림은 필수적으로 표면에 나타난다.

(20) 행복은 가정 /밖\에서 찾을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찾아야해↓

(21) 8.15 /해방\이 아니라↑ 8.15 /광복\이라
해야 맞습니다↓

위의 예는 하나의 긴 발화 속에 있는 두 개의 억양구에 대조항들이 들어있는 경우로 명시적 대조항들은 높돌돌림을 가지며, 두 개의 억양구가 각각 초점 돌돌림을 갖는 상호 화맥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돌돌림의 실현은 발화 내에서의 그 위치에 달려있고 초점 범위 밖의 어휘항과 관련이 있는 돌돌림은 탈락이 되어 이른바 영어의 탈악센트(deaccenting)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다음 예들을 보자.

(22)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야↓
VS[사느냐 죽느냐]VS (★은 탈락 위치)

(23) 성공이냐 /실패냐\는 기업에 달려어↓
VS[성공이냐 실패냐]VS

위와 같이 두 개의 대조항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초점 범위를 형성하면 두 요소의 상대적 대립성(oppositeness)의 약화로 인해 첫 번째 요소보다는 두

번째 요소에 초점 돌돌림이 주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미 전제된 알려진 정보가 앞에 나타나 있고 두 요소 사이의 거리가 있을 경우에도 역시 뒤에 오는 새로운 정보에 돌돌림, 즉 정보 초점이 강하게 할당된다. 이것은 앞에 있는 알려진 정보는 화맥이나 또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4) (책 가게보다는) /연탄\가게가 더 어울리겠는데
VS[연탄가게가]VS(25)

(25) X: 날 협박하는 거야?

Y: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VS[사실이잖아]VS

다음 예 (26)에서 '무시하는'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실제 말하는 이는 '버릇'의 '버'에 돌돌림을 부여함으로써 돌돌림과 초점의 '부조화'(misfit) 결과를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초점 범위를 한정해 주는 정보 구조 경계는 '무시하는'을 포함해야 한다.

(26) 년 세상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
년 세상을 VS[무시하는 버릇이]VS 있어.

화맥에 의한 초점의 파생을 차단해 주는 정보 구조 경계는 '알려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분리해주지만 그것이 반드시 음성적 명시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참 고 문 헌

- 서화진 (1992), 한국어의 주제(Topic)에 관한 화용론적 분석, 언어연구 6집: 17-38, 언어연구회
- 성철재 (1992), 표준한국어 악센트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언어연구 6집: 39-64
- 이영길 (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호영 (1997), "국어운율론", 한국연구원
- 윤일승 (1992), 끊김 앞에서 보이는 서울말의 억양특징, 언어연구 5집: 41-64, 언어연구회
- Grundy, Peter (1995), *Doing Pragmatics*, Edward Arnold
- Halliday, M.A.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Arnold
- Lambrecht, Knud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ek, B. (1987), *The pragmatics of intonation*, Lublin: KUL
- Marek, B. (1992), Focus and intonation, In J.Fisiak & S.Puppel(eds.) *Phonological Investigation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443-465.